



원덕랑과 단야

우리 나라 역사 속에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혹은 비련으로 끝나기도 하고 춘향전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대개 두 남녀가 서로 맺어져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특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혹 비련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으니 단야(丹若)와 원덕랑(元德郎)의 러브 스토리가 그것이다. 전북 김제군에서는 벽골제 쌍룡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벽골제(碧骨堤)라면 삼국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댐으로서 그 뿌리는 멀리 단군조선 시대의 창해역사(滄海力士)의 이야기까지 소급된다. 지금도 김제·만경 평야에 두 줄기로 뻗어 내린 제방을 둘러 보게 되면 그 옛날 젊은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슬픈 사연이 떠올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이야기는 신라 원성왕 때, 즉 8세기로 되돌아간다. 이 때 벽골제는 5백년이나 긴 세월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바람과 비 그리고 파도에 시달려 붕괴직전에 있었다. 벽골제가 무너지는 날 이곳 농사는 망치게 되고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방을 고치기에는 그 곳 지방민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걱정하던 김제 태수는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왕은 즉각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 벽골제 보수공사에 종사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인력이 모자라서 심지어는 제주도민까지 바다를 건너와 일을 돕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는지 전설에 따르면 벽골제 바로 근처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이루어진 것은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짚신에 묻은 흙을

털어 쌓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짓말 같기도 느껴지지만 그만큼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일화로 해석해 보직하다.

임금님은 또 서울에서 원덕랑이라는 토목기사를 김제로 급파하였다. 태수는 매우 기뻐하여 원덕랑을 후히 대접하였다. 원덕랑은 젊은 청년이었고 태수에게는 아리따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단야라고 했다. 태수는 은근히 원덕랑을 사위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단야 역시 어느 덧 그를 사랑하여 낭군감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는 지지부진하였다. 아무리 흙과 돌을 날라 제방을 높이 쌓아도 한번 풍파가 몰아다치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원덕랑의 기술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은 벽골제에 살고 있는 청룡과 백룡이 장난을 해서 그러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멀리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이라 하루 빨리 공사를 마치고 귀향하여야 하는데 마냥 지루한 일만 계속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론은 결정되었다. 성난 용들의 장난을 못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처녀를 바쳐 그 마술을 달래는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누구든지 불쌍하지만 아름다운 처녀를 용신에게 바쳐 수만명의 남성들을 편하게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최종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 때 한 아가씨가 원덕랑을 찾아 왔으니 그녀는 원덕랑의 약혼녀였다. 이름은 월내(月乃)라고 하는 신라 아가씨였다. 바로 갔다 오겠다던 원덕랑이 한해를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혹시 무슨 일이 나 일어나지 않았는지 걱정하던 나머지 먼 길을 떠난 것이다.



당황한 것은 태수와 단야였다. 총각으로만 알고 철석같이 믿었던 원덕랑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단야는 몸져 누어 버렸고 태수는 큰 배신감에 그만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마음같아서는 원덕랑을 죽이고도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는 없어 한가지 계략이 머리에 떠올랐다.

약혼녀 월내를 죽여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벽골제 공사는 부진하여 원성이 자자한데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는가. 태수는 직권으로 월내를 용신의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병들어 누운 딸 단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단야는 순진한 아가씨였다. 당초 약혼녀가 있는 원덕랑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잘못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월내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녀를 죽인단 말인가 단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단야는 결심하였다. 자기가 죽어서 이 죄없는 월내를 살리고 또 사랑하는 님을 구하기로. 어느 날 몹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던 밤 단야는 성난 용신 앞에 달려나아가 몸을 던졌다. 그녀의 죽음이 있던 날부터 바람은 자고 파도는 잠잠해져 공사는 급속히 진척되어 갔다. 태수는 가없는 딸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일꾼들은 모두 태수를 고맷게 여기고 단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월내와 원덕랑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아마 두 사람은 평생토록 단야를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누리 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는 벽골제 놀이에는 이런 단야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이고 1천년이 넘도록 그 고귀한 희생정신을 우리들의 가슴 속

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로미오와 줄리엣, 즉 원덕랑과 단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주객이 전도라 했지만 이야말로 손님이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요즘의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조금도 자기 희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작년에 서독에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을 흔히 볼수 있다고 한다.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은 아내를 고발하고 이육고는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발하는 사회, 이것이 서구문명이요 유럽문화라는 것이다. 19세기 말 서구인들이 동양문화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자기네 문명의 근본적인 모순을 깨닫고 "서구의 몰락"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니 우리로서는 마땅히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재확인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



朴成壽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한국사학회 이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겸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부장